

국내 태권도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A Trend and Future Work of Taekwondo Study

이세환*

인하대학교

Lee, Se-Hwan

Inh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태권도 관련 논문 988편을 분석하여 향후 태권도학 연구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게재된 논문을 전반기(1974-1999)와 후반기(2000-2009)로 분류한 후 저자유형, 연구분야, 연구유형, 학술지 수준, 연구주제, 연구대상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태권도학의 연구는 점차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1996년도 이후 많은 태권도학회가 설립되어 태권도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유형에 있어서 단일저자보다는 3명의 공저자가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학제적 또는 복합적인 성격의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관심이 증대되어 연구분야와 연구주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연구유형으로는 기술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양적연구 이외에 질적연구, 통합연구 등도 시도되어 연구유형이 점차 다양해졌다. 학술지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논문 중 등재학술지 비율이 50%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태권도학 연구 수준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후반기에는 지도자와 태권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태권도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학 기초이론의 확립, 연구영역과 방법의 명확한 구분, 태권도학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i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trend and future work of taekwondo study and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academic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988 papers in journal between 1974 to 2009. Papers were split into two groups for analysis, 1974-1999 and 2000-2009, and classified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methods, and areas. The major result from this study were following. First, it was found that major research category of the investigated research products was a review of literatures or position paper. Second, in terms of statistical method of the articles utilizing some sort of statistic, it was found that half of the articles are merely based up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very few of them were utilizing advanced statistics.

Key words : Trend of Taekwondo Study, Bibliometric Method.

I. 서론

학문(學問, Science)이란 “한 범위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Wade & Baker, 1995),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하여 체계화한 지식의 영역”을 말한다.

태권도는 그동안 체육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 발전을 시도하며 발전해 왔다.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태권도에 대한 이론과 실기 체계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3년도에 태권도학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곽정현, 2005; 지치환, 윤상화, 조임형, 1997; 최상진, 2000) 태권도 자체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태권도에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인 연구(Descriptive research)나 실험적인 연구(Experimental research)에 치중하였고, 이론적인 연구(Theoretical research)에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은 시행착오를 수반하게 되고 일반화된 이론의 부재는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감수해야만 한다(Zeigler, 1975). 시행착오와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태권도학 분야에 이론적 연구를 늘리고,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태권도 실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태권도학 분야는 다른 학문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특하고 견고한 지식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태권도학의 지식체계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체계는 태권도의 학문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의 지배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연구 활동의 양적·질적인 수준이 빈약하여 지식체계의 정체성과 견고성이 부족하게 되면 학문적 평가수준은 물론 학문영역 자체의 존립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Witt, 198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태권도학 학문분야의 지식체계는 연구 역사가 매우 짧고 연구자의 노력이 부족하여 학문적 위상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태권도학은 다른 학문들로부터 이론과 원

리를 도입시키는 단계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태권도학이 정체성 있는 연구 분야로 인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학문으로써 선풍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태권도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다양한 도서들도 출간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등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의 연구 분야가 ‘태권도학’이라는 이름의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연구를 축적해감으로써 다른 학문분야로부터 학문적 수준과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권도학 연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지금까지 형성되고 축적된 태권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태권도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학문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동향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귀납적 분석에 의한 경험적 방법과 논리적인 내용분석에 의한 개념적 방법이 있다(Schrader, 1986). 이 중에서 경험적 방법은 연구자의 경험이나 사례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적인 논리 또는 결론을 추론하는 방법론을 뜻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출판물과 인용패턴을 분석하는 계량서지학적 방법(bibliometric method)을 들 수 있다. 계량서지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생산된 여러 형태의 학술문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학자간의 문헌적 교류, 그 분야의 학문적 속성,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등을 규명해내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계량서지학 연구는 한 주제 분야의 학제적 속성, 학문적 변화,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등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통찰하기 위하여 수행되거나, 한 주제 분야의 학술 문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모형을 토대로 그 학문 분야의 수명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동안 태권도 연구동향에 관련된 연구로서 지치환 등(1997)은 1985년부터 1996년까지 태권도와 관련된 학위논문 110편을 주제와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 주제로 신체적 요인, 경쟁을 위한 기술, 심리적 요인

을 주로 다루었고, 연구대상은 태권도 선수 관련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연구 영역의 편협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치환 등(1997)의 연구는 태권도 동향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연구 기간이 오래되었고, 태권도학과의 급격히 증가(곽정현, 2005)한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김도연과 허종관(2000)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체육학회지에 게재된 태권도 관련 논문 83편을 대상으로 게재연도, 분과, 연구유형, 주제, 연구대상, 자료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 운동역학과 사회체육분과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주제는 경기력, 연구대상은 운동선수가, 연구유형은 기술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부터 연구가 점차 다양화되어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체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반영되지 않았고, 연구에 사용된 논문편수도 적기 때문에 태권도학 전체의 동향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곽정현(2005)도 1973년부터 2003년까지의 태권도 관련 학위논문 813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동향보다는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결과를 도출하여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간이 짧거나, 학위논문 또는 한국체육학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단순히 연구주제, 대상, 방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학술활동의 기본이 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한 지식체계 및 연구영역을 다각도로 규명하려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태권도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방법 등 학문으로서 태권도학의 지식체계를 정립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태권도학 분야의 전체적 연구경향은 문헌의 서지적 현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태권도학 분야의 연구패턴 및 연구영역을 계량적 지학적 기법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태권도학 분야의 발전 수준은 어

는 정도이며,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을 고찰하고, 저자들의 연구 활동 및 연구주제의 시대적 변화와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였으며, 총 998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논문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게재 논문수

구분	논문수	비율(%)	누적비율(%)
	1974	1	.1
	1976	1	.1
	1983	2	.2
	1984	1	.1
	1985	2	.2
	1986	3	.3
	1987	2	.2
전	1988	1	.1
	1989	2	.2
반	1990	4	.4
	1991	1	.1
기	1992	6	.6
	1993	3	.3
	1994	3	.3
	1995	5	.5
	1996	8	.8
	1997	6	.6
	1998	18	1.8
	1999	41	4.1
	2000	25	2.5
	2001	58	5.8
후	2002	45	4.5
	2003	117	11.7
반	2004	115	11.5
	2005	125	12.5
기	2006	102	10.2
	2007	111	11.1
	2008	86	8.6
	2009	104	10.4
전체	998	100	100

1974년을 시작으로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우 미흡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는 1996년도 이후 태권도학회가 급격하게 증가(곽정현, 2005)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도부터 연구가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태권도학과 졸업생이 배출되어 대학원에 진학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시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였다.

시대적 기준으로 전반기(1974년~1999년) 25년간의 논문 수는 110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11%에 해당하며, 후반기(2000년~2009년) 10년간의 논문 수는 888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2.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방법은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www.riss.kr)에서 소장 자료 검색시스템을 통해 “태권도” 단어를 입력,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3. 분석범위

국내 태권도학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서학적 연구방법 중 소스(source)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스문헌분석이란 연구의 자료(source)인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저자유형, 저자와 소속기관의 관계,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 저자유형

수행된 연구가 단일저자에 의한 것인지, 공저자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저자유형을 분석하였다. 저자유형을 통해 연구의 경향이 학제적 성격 또는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구분야

학문별 성격에 의한 구분인 연구분야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4호)와 한국연구재단(2009)의 연구분야 분류표, 그리고 한국체육학회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체육사, 체육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경영학, 사회체육/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생리학/처방,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특수/장애인체육, 운동영양학, 무도학으로 구분했으며, 구분하기 곤란한 논문은 기타분야로 세분화하였다.

3)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Thomas & Nelson(1990)에 의해 분류된 연구유형을 근거로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질적연구로 구별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사용한 연구는 통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기술적 연구에는 질문지, 면접, 규범, 사례, 상관, 발달적 연구를 포함하였고, 분석적 연구에는 역사적, 철학적 연구와 문헌고찰, Meta 분석을 포함하였다. 실험적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로 독립변인의 조작에 의한 종속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질적연구는 인터뷰, 관찰결과, 역사 기록 등 질적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포함하였다.

4) 학술지 수준

학술지 수준은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 자료(2010년 3월 9일 기준)를 근거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미등재학술지로 분류하였다. 태권도 관련 논문이 게재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기타학술지 목록은 <표 2>와 같다. 학술지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진행된 태권도 연구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5)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선행연구(지치환 등, 1997; 전익기, 이재돈, 곽정현, 2004; 곽정현, 2005; 김도연과 허중관, 2007)에서 제기된 연구의 주된 문제점을 유목화하여 이를 경기력, 태도/인식, 교수학습/프로그램, 사상/철학, 시설/제도/행정, 유용성/대중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2. 태권도 논문이 게재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미등재학술지 목록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미등재학술지
체육과학연구	대한무도학회지	스포츠리서치
발육발달학회지	운동학 학술지	세계태권도학회지
사회체육학회지	체육과학회지	
스포츠교육학회지	체육사학회지	
스포츠사회학회지	초등체육학회지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스포츠심리학회지		
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운동과학		
운동역학회지		
운동영양학회지		
체육철학회지		
체육측정평가학회지		
체육학회지		
특수체육학회지		
사회과학연구		

6)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조사연구, 관찰 및 면담연구의 경우 명확한 연구대상이 있으므로(박현옥, 김은주, 2004) 각각의 연구대상자를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 문헌연구와 기타 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도자, 선수, 학부모, 대학생/일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태권도장, 심판, 기타로 분류하였다.

4. 신뢰도

신뢰도란 자료 범주화에 대한 분류자들 간의 일치성 정도이며, 내용분석의 신뢰도는 적어도 2명 이상의 분류자들이 독립적으로 일련의 자료를 범주화하는 것을 요구한다(Krippendorff, 1980).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세 명의 동료연구자와 독립적으로 연구 논문들을 변인 별로 분석한 뒤 분석자간 자료범주 일치 확인을 위해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Borg & Gall, 1983). 이를 바

탕으로 2차적으로 태권도학 전공교수 1명과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분류에 대해서는 수집된 논문들을 함께 검토하여 토론을 통하여 의견일치를 도출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연도별 게재된 학술지의 저자유형, 연구분야, 연구유형, 학술지 수준, 연구주제, 연구대상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전반기로 2000년 및 그 이후를 후반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저자유형에 따른 분석

저자는 단일저자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한 공저자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저자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1명인 경우가 412편(41.3%), 2명이 316편(31.7%), 3명이 172편(17.2%) 순으로 나타났다.

저자유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1명의 단일저자 비율이 53.6%, 2명이 30.9%, 3명이 8.2% 순인 반면, 후반기에는 단일저자 비율이 39.8%, 2명이 31.8%, 3명이 18.4% 순으로 나타나, 전반기에 비해 후

표 3. 연구당 저자수 단위: 빈도(%)

구분	1974~1999	2000~2009	전체
1명	59 (53.6)	353 (39.8)	412 (41.3)
2명	34 (30.9)	282 (31.8)	316 (31.7)
3명	9 (8.2)	163 (18.4)	172 (17.2)
4명	3 (2.7)	47 (5.3)	50 (5.0)
5명	3 (2.7)	20 (2.3)	23 (2.3)
6명	2 (1.8)	23 (2.6)	25 (2.5)
총계	110 (100)	888 (100)	998 (100)

반기에 단일저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3명의 공저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1996년 이후로 많은 태권도학자가 생김으로 인해 태권도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연구 경향이 점점 학제적 또는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연구분야에 따른 분석

태권도학의 연구분야는 체육사, 체육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경영학, 사회체육/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생리학/처방,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특수/장애인체육, 운동영양학, 무도학으로 분류하였으며, 연구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분야에 따른 분석결과 스포츠심리학이 186편(18.6%)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스포츠생리학/처방 160편(16%), 스포츠사회학 125편(12.5%), 운동역학 102편(10.2%), 스포츠경영학 106편(10.6%), 체육철학 93편(9.3%)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분야에 따른 분석 단위: 빈도(%)

구분	1974~1999	2000~2009	전체
체육사	4 (3.6)	37 (4.2)	41 (4.1)
체육철학	10 (9.1)	83 (9.3)	93 (9.3)
스포츠사회학	15 (13.6)	110 (12.4)	125 (12.5)
스포츠심리학	16 (14.5)	170 (19.1)	186 (18.6)
스포츠교육학	0 (0)	38 (4.3)	38 (3.8)
스포츠경영학	5 (4.5)	101 (11.4)	106 (10.6)
사회체육/ 여가레크리에이션	0 (0)	14 (1.6)	14 (1.4)
스포츠생리학 /처방	20 (18.2)	140 (15.8)	160 (16.0)
운동역학	27 (24.5)	75 (8.4)	102 (10.2)
체육측정평가	7 (6.4)	32 (3.6)	39 (3.9)
특수/장애인체육	0 (0)	9 (1.0)	9 (.9)
운동영양학	0 (0)	16 (1.8)	16 (1.6)
무도학	3 (2.7)	47 (5.3)	50 (5.0)
기타	3 (2.7)	16 (1.8)	19 (1.9)
총계	110 (100)	888 (100)	998 (100)

연구분야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운동역학(24.5%), 스포츠생리학/처방(18.2%), 스포츠심리학(14.5%), 스포츠사회학(13.6%)순으로 주로 생리적, 역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인 및 상해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 후반기에는 스포츠심리학(19.1%), 스포츠생리학/처방(15.8%), 스포츠사회학(12.4%), 스포츠경영학(11.4%), 체육철학(9.3%)순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운동역학 등 경기력 위주의 연구 비율이 줄어들고 체육철학 등 태권도의 본질적인 연구의 양이 증가했으며, 스포츠경영학 연구의 증가는 태권도장의 증가에 따라 도장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반기에 연구되지 않았던 스포츠교육, 여가레크리에이션, 장애/특수체육, 운동영양학의 연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태권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분야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태권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보다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스포츠경영학, 여가레크리에이션, 특수/장애인체육 연구의 증가는 학문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대적인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구가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지식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한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태권도학만의 지식체계를 갖추어 보다 질 높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연구유형은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질적연구, 통합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연구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기술적 연구 449편(45%), 분석적 연구 287편(28.8%), 실험적 연구 246편(24.6%), 질적연구 12편(1.2%), 통합연구 4편(0.4%)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실험적 연구(41.8%), 기술적 연구(29.1%), 분석적 연구(29.1%)

표 5.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단위: 빈도(%)

구분	1974~1999	2000~2009	전체
기술적 연구	32 (29.1)	417 (47.0)	449 (45.0)
분석적 연구	32 (29.1)	255 (28.7)	287 (28.8)
실험적 연구	46 (41.8)	200 (22.5)	246 (24.6)
질적연구	0 (0)	12 (1.4)	12 (1.2)
통합연구	0 (0)	4 (0.5)	4 (0.4)
총계	110 (100)	888 (100)	998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기술적 연구(47%), 분석적 연구(28.7%), 실험적 연구(22.5%), 질적연구(1.4%), 통합연구(0.4%)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연구는 직접 관찰하기에 너무 큰 모집단을 기술하기 위해 원자료를 수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집단의 태도와 성향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기술적 연구의 대부분은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였으며, 기술적 연구의 비율이 전체 논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연구유형이 태권도학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구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태권도 연구가 자연과학적으로 단순한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나 경기자체의 형태적 분류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치환 등, 1997).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실험적 연구가 줄어들고, 기술적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질적연구와 통합연구 등도 시도되어 연구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질적연구는 특정한 스포츠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나 하위문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데 양적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 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연구와 실험연구, 분석연구와 같은 양적인 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질적인 연구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 관련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통합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용환(2002)은 두 연구가 서로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는 양적연구가 간과하기 쉬운

미세하고 복잡한 현상을 포착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양적연구는 질적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체육학에서 통합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태권도학에서도 통합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술지 수준에 따른 분석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미등재학술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술지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 등재학술지 515편(51.6%), 미등재학술지 388편(38.9%), 등재후보학술지 95편(9.5%)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수준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등재학술지(80.9%), 미등재학술지(19.1%)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등재학술지(48%), 미등재학술지(41.3%), 등재후보학술지(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중 등재학술지의 비율이 50% 정도만 차지하고 있고 미등재학술지 비율도 38.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태권도 연구 수준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이 줄어들고, 미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태권도학과의 급증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양적인 측면의 발전은 있었지만, 반대로 학위취득 및 교수임용을 위한 실적을 위해 미등재학술지에 무분별하게 논문을 투고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6. 학술지 수준에 따른 분석 단위: 빈도(%)

구분	1974~1999	2000~2009	전체
등재학술지	89 (80.9)	426 (48.0)	515 (51.6)
등재후보학술지	0 (0)	95 (10.7)	95 (9.5)
미등재학술지	21 (19.1)	367 (41.3)	388 (38.9)
총계	110 (100)	888 (100)	998 (100)

양질의 연구는 학문분야의 존재 가치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타 학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적은 연구 활동과 낮은 수준의 연구 내용으로 다듬어진 빈약한 지식체계는 그 분야의 존속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김양중, 199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동안 태권도학 연구는 질적인 측면을 간과했던 것을 연구결과가 반증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태권도학이 하나의 고유한 지식체계를 갖춘 학문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 경기력 327편(32.8%), 태도/인식 193(19.3%), 시설/제도/행정 171(17.1%), 유용성/대중화 160(16%), 사상/철학 95(9.5%), 교수학습/프로그램 52(5.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경기력(58.2%), 태도/인식(12.7%), 시설/제도/행정(11.8%), 사상/철학(9.1%), 유용성/대중화(5.5%), 교수학습/프로그램(2.7%)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경기력(29.6%), 태도/인식(20.2%), 시설/제도/행정(17.8%), 유용성/대중화(17.3%), 사상/철학(9.6%), 교수학습/프로그램(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력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태권도학 자체가 실용적인 학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각종 국제 태권도 대회의 개최에 따른 경기력 수준의 평준화에

표 7.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단위: 빈도(%)

구분	1974~1999	2000~2009	전체
경기력	64 (58.2)	263 (29.6)	327 (32.8)
태도/인식	14 (12.7)	179 (20.2)	193 (19.3)
교수학습/프로그램	3 (2.7)	49 (5.5)	52 (5.2)
사상/철학	10 (9.1)	85 (9.6)	95 (9.5)
시설/제도/행정	13 (11.8)	158 (17.8)	171 (17.1)
유용성/대중화	6 (5.5)	154 (17.3)	160 (16.0)
합계	110 (100)	888 (100)	998 (100)

의해 중주국으로서의 경기력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가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더욱 가속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김도연과 허종관, 2007).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경기력 관련 논문이 줄어들고, 태도/인식과 유용성/대중화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급증하면서 나머지 주제에 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연구주제 또한 다양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학과 졸업생의 배출로 인한 태권도장의 급격한 증가(이승재와 조광민, 1998)는 그 동안 경기와 선수에만 치중했던 관심을 도장 중심으로 옮겼으며, 이로 인해 연구주제 또한 변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태권도 수련생의 85%가 초등학교 학생들(이세환과 김우성, 2007)이란 점을 감안할 때 태도/인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 결과로 판단된다.

후반기에 유용성/대중화의 연구가 증가한 이유는 전반기의 기초연구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태권도학 자체가 실용적인 학문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단위: 빈도(%)

구분	1974~1999	2000~2009	전체
지도자	5 (4.5)	94 (10.6)	99 (9.9)
선수	63 (57.3)	273 (30.7)	336 (33.7)
학부모	0 (0)	12 (1.4)	12 (1.2)
대학생/일반	3 (2.7)	39 (4.4)	42 (4.2)
중고등학생	2 (1.8)	27 (3.0)	29 (2.9)
초등학생이하	10 (9.1)	156 (17.6)	166 (16.6)
태권도장	1 (0.9)	35 (3.9)	36 (3.6)
심판	0 (0)	6 (0.7)	6 (0.6)
기타	26 (23.6)	246 (27.7)	272 (27.3)
합계	110 (100)	888 (100)	998 (100)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 선수 336편(33.7%), 기타 272(27.3%), 초등학생이하 166(16.6%), 지도자 99편(9.9%), 대학생/일반 42편(4.2%), 태권도장 36편(3.6%), 중고등학생 29편(2.9%), 학부모 12편(1.2%), 심판 6편(0.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선수(57.3%), 기타(23.6%), 초등학생이하(9.1%), 지도자(4.5%), 대학생/일반(2.7%), 중고등학생(1.8%), 태권도장(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선수(30.7%), 기타(27.7%), 초등학생이하(17.6%), 지도자(10.6%), 대학생/일반(4.4%), 태권도장(3.9%), 중고등학생(3%), 학부모(1.4%), 심판(0.7%) 순으로 나타나 시대별로 관심 있는 연구대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태권도 연구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자료 및 기록, 매체), 초등학생 대상에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태권도의 유용성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선수대상 논문 비중이 줄어든 반면, 지도자와 태권도장 대상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부모와 심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도장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지도자 대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력 향상이나 도장 운영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일반의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현재 태권도장 수련생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련생의 수가 저출산,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따른 청소년, 성인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IV. 태권도학의 학문적 과제

태권도학이 학문으로서 비교적 역사가 짧음에도 불

구하고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태권도분야를 비롯하여 이 사회의 수요와 요구가 그만큼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향후에도 대중의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참여확대, 태권도산업의 성장 및 발달 가속화, 활용 가능한 잠재 시장의 보유 등 태권도의 환경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태권도가 급격하게 대내외적으로 발전하는 이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태권도의 발전과정에는 세계화와 대중화의 목적에 무게를 둔 채 태권도의 양적 성장에만 고무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태권도의 학문적 토대나 정체성 확립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등한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태권도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하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이봉, 2009). 태권도가 학문으로써 정착하고 질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태권도학 기초이론의 확립이 요구된다. 즉, 태권도학의 제 원리와 이론이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또한 태권도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이론과 기법의 지속적인 대응과 구비가 요구된다.

만약 태권도학의 지식체계가 체육학 등에서의 이론이나 원리들을 변화나 응용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름대로의 기초이론을 형성해 나가지 못한다면 태권도학은 더 이상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Boucher, 1998; Chalip, 2006; Coulter, 2002).

둘째, 태권도학의 연구영역과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태권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연구방법과 영역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태권도학의 연구방법은 학문적 과제가 던지고 있는 질문의 성격에 따라 연구방법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진리를 규명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학문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영역의 균형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수의 분야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횡단적,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에만 연연하는 경향이어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전체를 통찰하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시도가 그 동안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편중된 연구는 태권도학의 기초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권도학 대부분의 논문들이 기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심화시키는 후속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후속연구의 부재나 단편적 연구의 만연은 연구업적의 축적을 통한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태권도학 분야들 중에서 몇몇 분야에만 연구가 편중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태권도학 연구자들이 태권도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태권도학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다. 태권도학이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고,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분야로서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연구능력이 있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배출이 요구된다. 최근에 대학에서 태권도학 교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태권도학 프로그램의 석·박사과정은 미래의 교원양성 과정이라고 하겠다. 학부와 차별된 수준에 따른 양질의 석·박사 프로그램의 운영은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태권도학 프로그램이 확산될수록 이를 위한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고, 이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성장시키고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태권도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유형, 연구분야, 연구유형, 학술지 수준,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따라 분석하여 국내 태권도학 분야의 연

구동향을 알아보고 향후 태권도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다.

지난 35년간 게재된 전체 998편의 논문을 전반기(1974~1999)와 후반기(2000~2009)로 분류하여 저자유형, 연구분야, 연구유형, 학술지 수준, 연구주제, 연구대상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국내 태권도학의 연구는 점차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1996년도 이후 많은 태권도학자가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태권도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유형에 있어서 단일저자보다는 3명 이상의 공저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관심이 증대 되어 연구분야와 연구주제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었다. 연구유형으로는 기술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양적연구 이외에 질적연구, 통합연구 등도 시도되어 연구유형이 점차 다양해졌다. 학술지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논문 중 등재학술지 비율이 50%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태권도학 연구 수준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후반기에는 지도자와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 점차 다양화되었다. 이상으로 태권도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태권도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학의 기초이론의 확립, 연구영역과 방법의 명확한 구분, 태권도학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국내 태권도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와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계량서지학적인 방법 중 저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하여 태권도학계에서 연구의 중심은 누구이고, 시대별 주요 관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연구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지적구조 탐색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학 고유의 지식체계 정립과 이를 통해 태권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정현(2005).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태권도의 학문적 방향모색. **한국체육학회지**, 44(5), 69-78.
- 김도연, 허종관(2007). 태권도 연구동향 분석. **한국체육 측정평가학회지**, 9(1), 61-74.
- 김양중(1993). 사회체육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32(1), 181-187.
- 박현옥, 김은주(2004). 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8(4), 285-309.
- 이봉(2009). 태권도학 정립의 기초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8(4), 37-44.
- 이세환, 김우성(2008). 초등학교 태권도수련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3), 553-577.
- 이승재, 조광민(1998). 태권도 체육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마케팅 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7(4), 583-593.
- 전익기, 이재돈, 곽정현(2004). 태권도학 연구동향 및 과제.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675-1684.
- 조용환(2002).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지치환, 윤상화, 조임형(1997). 태권도 연구경향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2(2), 153-166.
- 최상진(2000). **태권도학 전공 신입생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한국연구재단(2009). www.nrf.go.kr
- Borg, W. R., & Gall, M. D. (1983). *Educational research*. NY: Longman.
- Boucher, R. L. (1998). *Toward achieving a focal point for sport management; A binocular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2, 76-85.
- Chalip, L. (2006). *Toward a distinctive sport management discipline*.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0, 1-12.
- Coulter, M. (2002). *Strategic Management in Action*. NY; Newyork, Prentice.
- Krippendorff, K. (1980). *Content analysis If its methodology*. IL; Beverly of Chicago Press.
- Schrader, A.M., (1985). *Bibliometrics Study of the JEL, 1960-1984*.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 279-300.
- Thomas, J. R., & Nelson, J. K. (1985). *Introduction to research in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Wade, M. G., & Baker, J. A. (1995). *Introduction to Kinesiology*. WI; Wisconsin, WCB Bwown & Benchmark.
- Witt, P. A. (1984). *Research in transition; Prospects and challenges*. *Parks and Recreation*, 60-63
- Zeigler, E. F. (1975). *Personaliz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hilosophy*. Illinois; Stipes Publishing Co.

